

# 민족종교의 특수성과 보편화 가능성

劉欣雨\*

## 目次

머리말

1. 민족종교의 발생 동기와 원인
2. 민족종교의 특수성
3. 보편화 가능성

## 머리말

본 발표자는 대순진리회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대순진리를 정면으로 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족종교 공통의 토대 또는 조건들을 검토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사실 모든 종교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갖는다. 그런데 이 발표문 제목에서 말하는 '특수성'은 민족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을 의미하며, '보편화 가능성'은 간단하게 '원리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우 애매모호하고,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것, 특히 '원리화'와 관련하여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발표자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지만, 달리 표현할 재주가 없는 관계로 그냥 그대로 쓰기로 한다.

특수한 조건을 말하기 전에 민족종교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래 종교학에서 말하는 민족종교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인종만이 믿는 종교로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開祖는 없고, 민족의 성립과 함께 발생한 종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민족종교는 이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일단의 한국 자생종교들이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의식하고 선택한 용어이다.<sup>1)</sup> 한국 종교학계에서의 민족종교 발단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1860년 경주에서 水雲 崔濟愚가 창도한 東學이 그 기점이다. 현재 3백 여 교과<sup>2)</sup>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新興宗教 또는 新宗教라는 말과 혼용되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 우리 학계에서 '신흥종교'라는 말은 일단 긍정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진다. 일제시대 민족종교를 표방하고 나온 교단들을 '類似 宗教'로 분류한 것에 상대하여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 '유사 종교'란 결국 '사이비 종교'라는 말인데, 신흥종교라는 말은 민족종교가 결코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의식적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新興宗教라는 말은 동시에 교리·의례·조직의 측면에서 기성종교에 비해 정교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결핍된 종교라는 부정적인 함축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다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서의 '신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신종교'라는 용어도 그 '새롭다'라는 것이 제도종교·기성종교와의 관련 하에서만 쓰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신종교'라는 말보다는 '민족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특수한 함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자생의 종교들이 의식적으로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신종교들을 모두 민족종교라고 할 수는 없다.<sup>3)</sup> 보통 민족종교라고 규정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① 한국의 자생종교로서, ② 민족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고, ③ 민족 고유 얼의 계발을 기도하며, ④ 고난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철학박사

1) 尹以欽, "世界宗教史에 있어서의 韓國民族宗教의 意味"(『한思想和 民族宗教』, 一志社, p.319.)

2)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3) 『한국민속대관』 제3권(고려대 출판)에 의하면 한국의 신흥종교들은 크게 ①수운계(동학계) ②단군계 ③증산계(우치계) ④연담계(남학계, 정역계) ⑤봉납계(찬물계) ⑥신계계(각세도계) ⑦불교계 ⑧기독교계 ⑨무속신앙계 ⑩연합계 ⑪계통불명 ⑫일관도계 ⑬외래계로 분류할 수 있고, 1975년 조사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 증산계가 59개로 가장 많으며, 모두 303개 교단이 있다고 한다.

으로부터 해방된 민족의 영광을 약속하는 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sup>4)</sup>

민족종교라는 말 자체가 이미 특수성을 함축하고 있지만, 위에서도 밝혔듯이 이 발표문에서는 위의 네 가지 기준과 관련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1. 민족종교의 발생 동기와 원인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민족종교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개항기, 일제강점기와 1960~70년대 산업화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항기의 민족종교는 동학계·증산계·단군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종교는 『鄭鑑錄』, 南朝鮮信仰 등 종말론적 대망사상과 미륵신앙, 운세사상이 사상적 기반이 되어 後天開闢을 표방했다. 특히 後天開闢論은 이들 종교의 중심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데, 해체기에 직면한 조선봉건사회의 체제모순과 서양제국의 침략에 따른 대내외적 위기, 18세기 중엽 이후 빈발하던 민란, 그리고 당시의 기성 종교였던 유교의 위상 약화와 천주교의 확산이 후천개벽론 제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이들 민족종교 대부분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등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에는 특히 기독교계 신종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아마 기독교의 급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 민족종교 계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 새로이 창도하는 교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대순진리회가 그 대표이다. 기독교계 신종교들과 이들의 차이점은, 기독교계 신종교가 신비주의적 지향을 강하게 띠면서, 기독교적인 메아니즘(messianism)과 종말론 강조, 개인구원 중심인데 반하여 민족종교계열은 여전히 사회개벽 지향적, 공동체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기 신종교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뿌리뽑힘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 민중들에게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심리적 소속감을

4)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2, 집문당, 1991, pp.151-152.

부여하는 통로로 작용하였다는, 즉 도시형 종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민족종교들은 무엇보다 민중적인 염원을 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민족종교는 우선 민중들의 현실생활에 대한 불안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지도이념이 현실로부터 유리될 때 민중들은 자연 새로운 지도이념의 출현을 갈망하게 마련인데, 민족종교들은 이를 자처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한다. 이는 민족종교뿐만 아니라 신종교들의 공통적인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민족종교는 일반적으로 민족주체 의식의 고취, 人本 사상과 평등 사상, 후천개벽과 解冤相生 사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민족종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교단에 따라 특수한 동기와 원인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인 배경 두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제국주의든 아니면 근대화든 西勢의 충격과 확장에 대응하여 민족주체 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성 종교에 대하여 가지는 종교적 불만의식이다. 근대 민족종교 대부분은 우리 민족이 개벽된 후천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모순과 불의에 찬 시대는 조만간 마감되고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후천시대가 열릴 것인바, 우리 민족이 그 주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60~70년대에 발생한 민족종교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기성 종교에 대한 불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유교·불교·기독교 등 세계종교들을 능가할 우리 민족종교가 나와 온 세계의 종교와 정치를 주도할 것을 예언하는 선민사상이 발동하고 있다.<sup>5)</sup>

또 한 가지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계룡산과 모악산, 즉 민족종교 발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이 두 산의 차이점이다. 풍수사상에서 계룡산은 陽으로서 先天에 해당하고 모악산은 陰으로서 後天에 해당한다. 모악산을 계기로 하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後天開闢論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외자라 할 수 있는 필자에게 매우 흥미 있는 일임에는

5) 대순진리회의 『전경』 예시1절의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틀림없으나 여기서 자세하게 논할 생각은 없다.

## 2. 민족 종교의 특수성

앞에서 말한 대로,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용어는 매우 불투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족 종교 내부로 들어가 그 특수성을 짚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대순진리회 교리의 외부적 계기라 할 수 있는 ‘사회변동’의 특수성과 내부적인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후천개벽론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필자가 이해하기에 대순진리회는 특히 불평등 개혁 사상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전경』「교법」제1장 10절)

후천에서는 그 님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로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전경』「교법」제1장 68절)

후천에서는 약한 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깎일지라.(『전경』「교법」제2장 11절)

필자의 한계로 『대순전경』 전체를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하지만, 후천세계와 관련하여 위에 인용한 구절들말고도 “양반의 기습은 속히 빼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속히 좋은 시대가 이르리라”,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아니하고…백성은 원통과 한과 상극이 그치고…빈부의 차별이 철폐된다”,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든 척에 걸려서 콩나물 뽑히듯 하리라”, “사람을 쓸 때에도 남녀구별이 없어진다” 등의 구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불평등, 특히 양천, 적서, 남녀, 직업 등등에 있어 차별의 철폐를 강조하는 사회개혁사상은 증산을 이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원류는 『禮記』「禮運」의 大同思想에 있는 것 같

다.

사회변동·사회개혁에 관련된 종교의 기능은 보편적 질서 개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정신치료의 효과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사회체계에 속하는 어떤 질서, 역할, 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분명 대순사상은 기존사회의 비판을 통해 사회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이상사회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민중들로 하여금 새로운 대 사회 및 대 자아인식 전환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표자가 이를 특수성으로 한계 지우려는 것은, 대순의 사회개혁사상이 주로 개인의 측면, 다시 말해 개인에 대한 종교의 심리적 기능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천개벽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후천개벽 사상이 金一夫의 『正易』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따르면 선천은 曆으로 365.25일의 閏曆이고, 後天曆은 360일의 正曆이다. 후천력은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正義의 시대로 기대된다. 또 先天 시대는 抑陰尊陽의 시대이지만, 후천시대는 調陽律陰의 시대이다. 선천시대는 억음존양의 시대였기 때문에 억압과 차별이 불가피했지만, 후천시대는 조양율음의 시대로서 사랑과 정의가 넘쳐흐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 거기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良方으로서, 바로 선천시대를 마감하고(終萬物) 후천시대를 여는(始萬物) 땅이다. 이로부터 한국은 미래 琉璃世界의 주역으로 인식된다.<sup>6)</sup>

대순사상의 중심개념은 天地公事이다. 천지공사란 우주의 運行度數를 고쳐서 後天正曆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천지공사는 또한 解冤公事이다. 증산계의 경전인 『大巡典經』 5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先天에는 相克之理가 인간 事物을 맡았으므로, 모든 人事가 道義에 어긋나 그 冤恨이 맺히고 쌓여 三界에 넘침에, 마침내 殺氣가 터져 나와 지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천지 運度를 뜯어고치며 神道를 바로잡아 만고의 한을 풀고 相生의 道로써 仙境을 열고 造化政府를 세워 하염없는 다스림과 말 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6) 李正浩, 『正易과 一夫』, 아세아 문화사, 1985, pp.157-181.

화하며 세상을 고치리라.

여기서 보면 인류가 겪는 모든 재난의 원인은 원한을 품는 일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이상세계(仙境)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원한들을 풀어 없애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지공사란 상극으로부터 기인한 선천의 원한을 풀어주고, 상생의 원리가 지배함으로써 더 이상 원한이 맺히지 않는 선경이 실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천지공사 후의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이고, 더 이상의 불평등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과 평화의 세상이다. 그 선경의 모습을 『대순전경』 5장 16절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後天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聲音笑貌에 和氣가 무르녹고, 動靜語默이 도덕에 합하며, 衰病死葬을 면하여 不老不死하며, 貧富의 차별이 철폐되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요구하는 대로 빼다지간에 나타나며…지혜가 밝아서 과거 미래 현재 十方 세계의 모든 일을 통달하며, 水火風의 三災가 없어지고, 祥瑞가 무르녹아 淸和明麗한 낙원으로 化하리라.

따라서 후천 세계는 기독교의 천당과는 달리 現世救援이 실현된 지상낙원이다. 필자가 후천개벽을 또한 특수성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現世救援 사상 때문이다. 필자는 대순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증산교에서는 현세구원이 바로 이 땅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우리 민족이 그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근거로 우리 민족이 神明을 가장 극진히 대접하였기 때문에 신명들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나라를 보살필 것이라는 것과 증산 상제가 한국(조선)을 세계의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강림하여 일련의 공사를 집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神性에 관한 부분으로 필자가 감히 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후천개벽에는 말세의 위기가 절박해 있다는 교리상의 논증이 있어야 하며, 구세주의 출현과 이상세계의 개벽이 한국에서 있게 된다는 선민사상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만 지적하기로 하겠다.

### 3. 보편화 가능성

지극히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 절에서 말한 두 가지 차원의 특수성을 근거로 해서 그 보편화 가능성을 말해보고자 한다.

대순진리의 사상은 증산교 일반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개혁적·사회변동 지향적 사상을 강하게 띠고 있고, 거기에 따라 민중들의 의식전환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이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보다 중시함으로써 실제의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점은 東學과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증산교의 발전과정에서 증산교는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측면은 특히 증산교의 무저항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증산교 일반의 특성은 현실개혁적인 사회운동적 성격보다 종교의 내적 발전에 초점을 둔 순수 종교운동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띤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특히 대순진리회가 이러한 순수 종교운동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교단이라 생각하는데,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리적 논증이 지금보다 더욱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상과 관련하여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우리나라의 민족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사회변동은 종교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변동의 결과가 종교의 급격한 영향력 증대를 가져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화에 의해서 나타난 아노미(Anomie)적 현상에 기성종교의 에토스가 적절히 변용 되지 못하여 우리사회에 심각한 가치의 갈등과 자아상실 그리고 소외의식의 만연을 초래한 것이 다종교적 현상을 자극하고 거기에 신종교·민족종교가 자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신종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기복종교적 양상을 드러내게 하는 강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는 자칫 배타성을 키워 오히려 사회분열의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민족종교들은 그 출발에서부터 사회변동이나 발전의 상황하에서 때로는 사회비판으로서 기능해 왔고 또 때로는 사회유지의 기능을 해왔다. 말하자면 한국사회의 질서유지 형성에 있어서 민족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민족종교들 또한 개인적 차원의 종교운동보다 사회차원의 종교운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말세의 판단과 후천개벽에 관해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민족 종교들이 말세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정치·사회·경제·도덕의 혼란과 모든 재난이 말세의 조짐이자 심판의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재난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똑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전의 혼란과 재난을 말세로 판단하는 경우, 대부분 그것은 추상화되고 만다. 이 경우 후천개벽의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後天은 본래 현재와 미래를 다 가리키는 개념이지만 그 가운데서 현재성이 강조된다. 만약 현재가 말세라면 동시에 천지공사의 시점이 바로 현재라는 말이 된다. 여기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본 발표자가 언급할 영역이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따라서 말세를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논증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 따라 천지공사를 논증하는 교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말하기로 하겠다. 이는 동시에 선천시대와 후천시대 구획 기준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경』 「공사」 2장 16~17절과 관련된 한 마디만 덧붙이고자 한다. 이 두 구절은 陰陽合德, 一陰一陽과 관계된 것으로 문외한인 필자가 보기에 천지공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언급으로 생각된다.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 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 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웅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 점을 찍었는데 아홉 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다”고 말씀 하시고 내성에게 “팔 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 점을 쳤느냐”고 묻고 웅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요”라고 말씀 하시니 그들이 “후천

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렇듯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둘씩이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열 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한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상제께서 다시 “그렇듯하다”고 말씀을 건네시고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둘씩이나 원하는데 너는 어찌 하나만을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분부하셨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의 도수와 이윤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다.

중도들이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5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날 박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하셨다.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과부가 수절한다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고 말하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발표시 개략적인 설명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할 것은 위 구절이 陰陽의 교환성·결합성 보다는 순서성·질서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러한 순서성·질서성의 조직 자체를 법칙·원리로 보는 것으로서 선천의 상극에서 후천의 상생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원리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또 17절을 보면, 後天의 仙境 세계는 바로 모든 존재가 각각 제자리를 얻을 수 있는 세계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이상사회 관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